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남원시,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산업체 협약식 가져

남원시가 정부가 진행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돼 지역 상생과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남원시는 공모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1일 도교육청에서 도지사, 교육감, 5개 시장 군수, 전북대 등 7개 지역대학 총장, 캠퍼스 등 9개 기업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연대의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또한 시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취약해 기반산업조성,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및 정주환경 구축의 순환 고리로서 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며 인구소멸 위기로 지역 성장을 위해 특구 지정이 시급한 만큼, 남원교육지원청과 공동

으로 실무협의 T/F 구성, 교육혁신을 통한 지리산권 교육중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원형 특구 모델을 발굴 기획했다.

신청은 방법 3개 유형 중 광역지자체장-교육감,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3유형으로 준비했고, 전북특자도, 도 교육청 및 교육 전문가와 지역산업 성장전략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을 주요 골자로 온 역량을 집중하여 공모사업에 대비했으며, 폐교 서남대가 남원글로벌캠퍼스로 재생림에 따라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연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돼 지역인재 육성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구는 △남원형 늘봄학교거점센터 구축 공교육 구조화 △미래교육 및 신산업 특성과 교육 △글로벌 캠퍼스 연계 강화 △글로벌 K-컬처산업 특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실행 과제 4개 부분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남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늘봄학교 거점센터를 건립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예술고, 특색화고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캠퍼스 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을 기반으로 K-푸드, K-컬처 산업을 특화해 창업을 돕는 한편, 글로벌캠퍼스 내 산학협력과정 학과개설, 신산업융합학과, K-컬처 융합학과 개설 등 지역인재 정착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글로벌캠퍼스 K-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정착과 연계를 위해 랜선 한국어학당 운영, MOU 체결국과 문화교류 등 차별화된 컨텐츠를 지원하여 관계 인구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며 교육과 미래 신산업 연계, 일체형 지리산권 교육중심 도시로의 지역 성장을 이워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후 기자

맞춤형 아동정책 드림스타트 추진

임실군, 신체건강·정서행동 등 4개 영역 30여개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의 지역 아동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드림스타트가 올해도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욕구를 파악,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은 임실군 저소득층 아동 105세대 169명이며, 3억4800만원을 투입해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가족지원 4개 영역에서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각 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선정부터 종결까지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맞춘 통합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드림스타트는 그동안,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자 상담 및 가족 상담, 언어발달 지체 아동에게 언어치료, 지적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일대일 학습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문화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 영화 보는 날 등을 운영,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원봉사활동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으로는 아동의 예체능 관련 재능개발을 위해 관내 학원과 연계하고 학습비를 지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 교육, 가족 힐링캠프, 졸업여행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족 관계를 회복,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의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자원의 연계망 구축 및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는 임실군 드림스타트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실군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설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심민군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임실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85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자는 군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해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단시스템(www.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시행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올해 마늘, 양파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월동 후 철저한 병해충 방제 및 웃거름주기, 배수로 관리 등 현장 지도에 나섰다. 보은용 피복재(부직포, 비닐 등)를 피복한 포장은 3월 중순까지 기상 상황에 맞게 벗겨주는 것이 좋으며 한 번에 제거하는 것보다는 경화를 위해 조금씩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이상기상의 여파로 2월 중 잦은 강우로 인해 마늘·양파 논 재배의 경우 과습으로 뿌리썩음이 떨어져 생육이 저하되어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품질 마늘·양파 생산을 위해 웃거름으로 질소와 칼리를 2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마지막 웃거름은 수확예정일 60~70일 전) 2~3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며 웃거름을 너무 많이 주거나 시기가 늦으면 벌마늘(2차 생장) 발생, 양파는 구가 비대하지 않고 영양생장만 하는 청립주가 발생하므로 웃거름을 줄 때 주의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단시스템(www.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시행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마늘·양파 월동 후 생육 관리 현장 지도

순창군이 지난달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순창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선 8기 5대 목표 중 하나인 '군민 화합' 실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11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단은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전원이 참석하여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박종환 추진단장의 주재 아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사항들에 대해 단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 및 경제·관광 활성화 등 순창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지난해 4월 2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4차례 정기회의를 통하여 총 61건의 정책제안과 건의를 통해 순창군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실제로, 그간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현실성 있는 양질의 정책들은 실무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일부 군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군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은 빠른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첫 출하 춘향골 햇감자 선별 소비자 공급

수미 씨감자 농가 보급 생산

남원지역에서는 지난달 말 첫 출하된 춘향골 햇감자가 주산지인 금지면 일대(송동, 수지 포함)에서 생산되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센터)를 통해 선별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형복씨 등 2농가에서 9톤을 수확했고, 20kg들이 박스당 7만5,000원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가을에 수확한 저장한 감자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이다.

금지면 일대는 퇴적 평야지 미사 토양으로 배수가 잘돼 감자 생장에 좋은 지역으로, 농민들의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맛종



은 감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직접 재배해 생산한 수미 씨감자를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어 더욱 안정된 감자생산이 되고 있다.

특히, 지리산권역인 운봉, 인월, 아영 지역에서 생산된 춘향씨감자를 공급해 겨울철에도 햇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하에 갖춰져 있어 시설재배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고인배 기술센터소장은 "남원에서는 올해 210농가가 85ha를 재배해 67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 수확을 마무리하고 후속 작물로 수박이나 멜론을 재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원예작물뿐만 아니라 과수, 축산 등 전국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후 기자

순창군, 친환경자재 무료 공급 시작

순창군은 올해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목적으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자재를 무료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친환경자재는 고온성 GCM과 BM활성수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의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군은 해마다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총 1,256톤의 자재가 생산되어 2,350여 농가에게 공급됐으

며, 올해도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온성 GCM의 경우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촉진 효과로 경종 농가 수요가 많고, BM활성수는 퇴비 부숙 및 축사 악취 저감 효과로 축산농가에 인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매년 증가하는 친환경자재 수요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1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돈버는 농업의 실현

과 관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금과면 매우리에 친환경자재 생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유등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며, BM활성수는 매주 월·목요일, 고온성 GCM은 매주 목요일에 수령 가능하다.

단, 고온성 GCM은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령이 가능하며, 신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063-650-564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4차 정기회의 개최

순창군이 지난달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순창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선 8기 5대 목표 중 하나인 '군민 화합' 실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11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단은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전원이 참석하여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박종환 추진단장의 주재 아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사항들에 대해 단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 및 경제·관광 활성화 등 순창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지난해 4월 2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4차례 정기회의를 통하여 총 61건의 정책제안과 건의를 통해 순창군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실제로, 그간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현실성 있는 양질의 정책들은 실무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일부 군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군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은 빠른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